

광주, 3집 중 1집...청년도 노인도 “나 혼자 산다”

매년 증가세...고립·빈곤 우려 실효성 있는 복지서비스 필요

광주에서 청년과 노인을 중심으로 혼자 사는 가구가 증가해 세 집 중에 한 집이 '나 홀로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는 소득과 자산이 적은 터라 고립과 빈곤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복지 서비스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광주시 1인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62만3252가구)의 34.5%(22만1464가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

난 2019년에는 광주지역 1인가구는 31.1%였지만 2020년 32.4%, 2021년 34.5%로 증가하고 지난 2022년에는 35.5%까지 늘었다.

그동안 가족중심적 구조가 보편화 된 우리사회에서 1인가구는 '불완전'하거나 '비정상적'인 가구 형태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최근 1인가구는 수적으로 가장 우세한 가구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1인가구의 대다수는 청년과 노령층이 차지하고 있어 복지혜택이 절실한 가구로도 볼 수 있다.

지난 2020년 정부가 실시한 1인가구 생활실태조사결과를 보면 생활하며 겪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1인가구가 전체 응답자(619만2000명)의 42.4%로 가장 많았다.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 1위는 50.1%가 선택한 '주택 안정 지원'이었다. 주거 지원에 대한 요구는 청년층일수록 더 높다. 반면 고령의 1인가구일수록 건강과 의료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높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의 경우도 대부분 1인가구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1인가구의 모니터링과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광주지역 5개 자치구별로 보면 북구가 6만 8847가구로 1인가구가 가장 많았고 광산구(5만3329가구), 서구(4만7659가구), 남구(2만9921가구), 동구(2만1708가구) 순이었다.

광주시 전체 1인가구의 유형은 38.8%가 청년층으로 미혼이나 개인의 편의로 홀로 살고 있었고,

65.7%가 이혼 또는 사별 등의 이유로 홀로 살고 있는 중장 노년층이었다.

성별분포는 남성과 여성이 비슷하고 연령분포는 20세 미만 1인가구가 0.8%로 가장 적었고 40-60세 사이의 중장년층이 38.2%로 가장 많았다. 20-39세의 청년층도 38%나 됐고, 65세 이상 노년층도 23%를 차지했다.

5개 지자체별로는 1인가구 주요 세대층이 달랐다. 남구와 북구가 60대 이상이 주요 세대층으로 각각 39.6%, 34.3%가 60대 이상 1인가구였다. 동구가 20대 1인가구가 30.2%를 차지했고 서구와 광산구도 20대 1인가구가 각각 20%, 20.8%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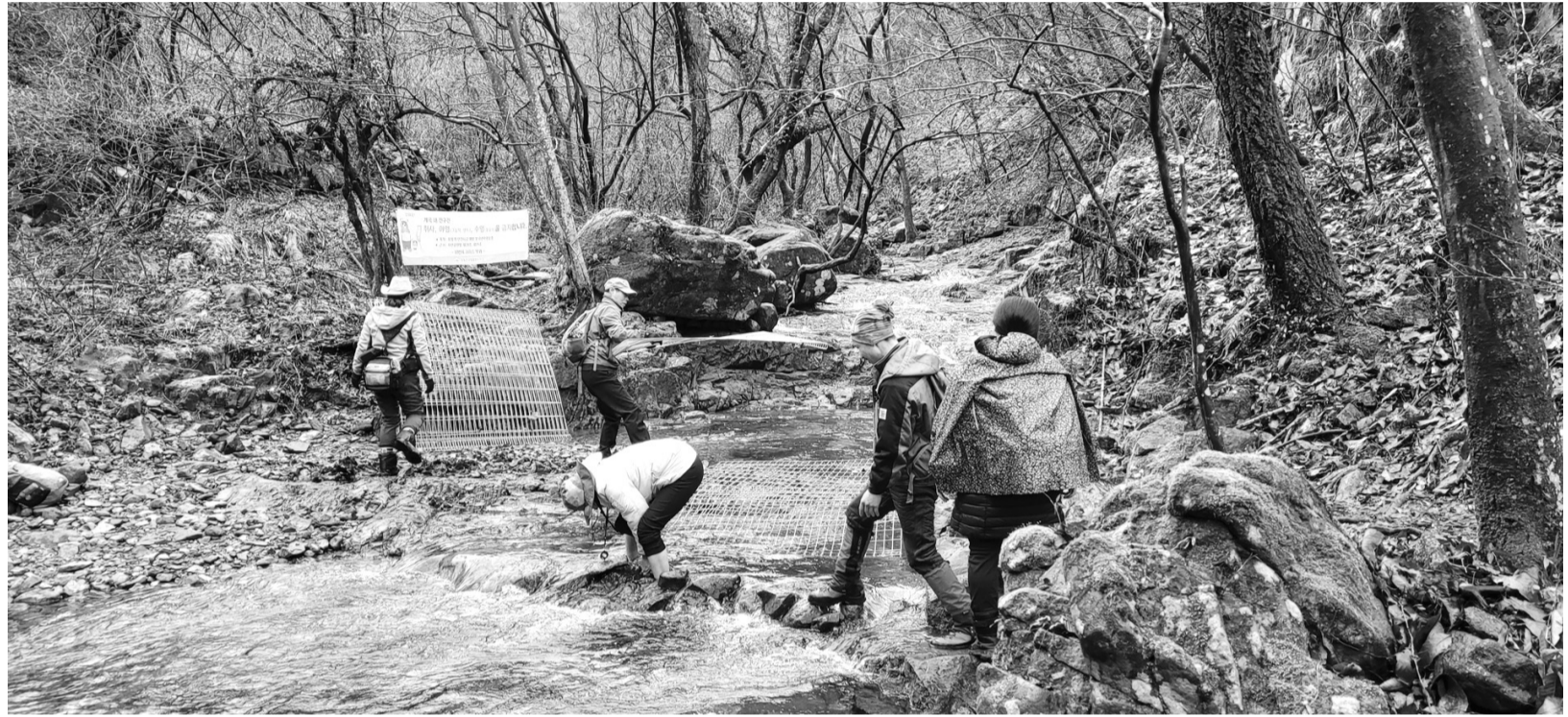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구지역 1인가구는 일자리

와 안전에 대한 정책의 수요가 높고, 서구와 북구의 1인가구는 경제지원의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는 경제와 안전에 대한 수요가 많은 반면, 광산구는 일자리와 경제지원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1인가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광주시는 자치구의 1인가구 요구를 반영한 특성화 사업을 공모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5개 지자체 또는 또는 지자체와 복지시설·기관 연합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1억 4000만원 시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지자체별 균등배부를 하지 않고 자치구별 1인가구 육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을 제시한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천 봄나들이 “수질·식생 살피어”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모래톱과 함께 떠나는 봄나들이’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광주시 북구 2수원지와 용추폭포, 중머리재, 광주천발원지 등을 걸으며 광주천의 식생과 현황을 살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광주환경운동연합 ‘두근두근 환경이야기’

참여자 모집...3월부터 활동 경험

환경과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환경보호 활동을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두근두근 환경이야기'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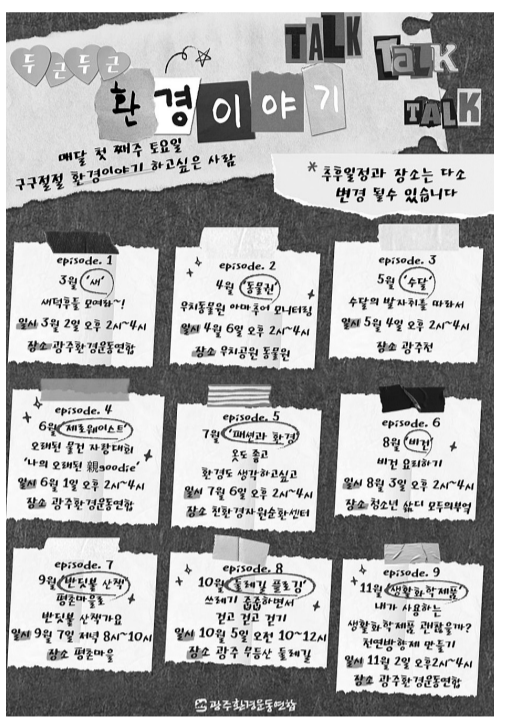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새, 수달, 반딧불, 비건, 제로웨이스트, 생활화학제품 등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는 9개의 환경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와 활동을 경험해볼 수 있다.

다음달 2일부터 11월 2일까지 매일 첫 번째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각각 다른 주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 '도시 새' 활동의 경우 광주 시내, 자신이 찍은 새 자랑 등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해 새집 만들기, 푸른길 공원 새집 설치 등의 활동이 이뤄진다.

신청은 광주환경운동연합(062-514-2470) 또는 홈페이지(gj.ekfem.or.kr) 프로그램 신청링크를 통해 할 수 있다.

월별 참여 신청도 가능하며 참가비는 회차별



5000원(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 면제)이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주택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주거코치와 독립 준비...상시모집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게 돕는 '주택지원사업'이 추진된다.

광주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사업인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주택 지원사업' (지원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참여할 발달장애인을 상시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주택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주거와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 기간 거주지를 제공하고 주거코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되는 주택은 홀로 생활하는 1인가구 5채와 2인가구 5채 등 총 10채이다. 지원주택 사업에 참여한 발달장애인들은 주거코치라고 불리는 사회복

지사의 주거생활 지원서비스를 받고 주거코치와 함께 독립생활을 준비하게 된다.

참여신청은 광주시에 거주지를 둔 성인 발달장애인이거나 누구나 가능하다. 선정되면 2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독립을 위해 추가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하기 앞서 단계적으로 주거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주택'도 운영하고 있다. 체험 기간은 3-6개월이다.

올해에는 북구에 있는 지원주택에 거주 중인 20대 남자참여자 발달장애인 A씨는 지원주택 생활을 하며 LH의 청년매입임대사업에 선정돼 독립을 앞두고 있다.

지원주택생활을 하며 지역사회 시설(동사무소, 경찰서, 우체국) 이용 경험과 요리나 청소 등의 주

거 생활 경험을 쌓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거주지에서 스스로 자신만의 생활을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연대는 지난해 기준으로 발달장애인 19명을 대상으로 847회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해 지원주택에 나와 자립을 시작한 발달장애인 6명이 현재 개인적인 거주지에서 자립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부모연대는 이 6명을 대상으로 꾸준한 사후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부모연대 관계자는 "지원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은 지원주택 생활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주체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면서 "지원주택 사업에서의 홀로서기 경험이 자립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영산강유역환경청, 섬진강댐 수위 조절 방류 시작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영산강홍수통제소가 섬진강댐 수위를 낮춘다.

27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섬진강댐 수위 조절을 위해 방류를 시작했다.

영산강수계 댐·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에서 섬진강댐의 수위를 지난 19일 기준 댐수위(195.5m)보다 11m 낮추기로 결정했다. 수위 조절은 184.0m까지 단계적으로 조절된다.

이번 조절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예년 대비 211% 많은 비가 내려 댐 수위가 높은 탓이다. 현재 수위를 유지할 경우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 자칫 고수위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기준 댐 수위는 예년 대비

201.3%인 4억1700만㎥를 기록했다. 저수율로 환산하면 89.5% 수준이다.

협의회는 섬진강댐의 과거 운영 실적, 향후 용수공급 전망 등을 고려해 수위를 결정했다.

유용호 환경부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은 "섬진강댐의 선제적인 수위 조절을 통해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물 그릇을 확보 하되, 향후 예상치 못한 가뭄이 오더라도 용수를 끊임없이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유역 내 다른 다목적댐, 저수지 등에 대해서도 수위 관리를 통해 이상기후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